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 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은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 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를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증부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凡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一、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一、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상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머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一、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一、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가, 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니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나, 正俗 一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贅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음을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싶어서 기가,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音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열거(一)·()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현하려고 노력했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_行先_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 干支와 後續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들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 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世宗實錄

世宗二十一年(正統四年).....	一
世宗二十二年(正統五年).....	八五
世宗二十三年(正統六年).....	二五
世宗二十四年(正統七年).....	二八〇
世宗二十五年(正統八年).....	三六二
世宗二十六年(正統九年).....	四二六
世宗二十七年(正統十年).....	四七一
世宗二十八年(正統十一年).....	四九六

世宗實錄 卷八十四

二十一年正月

○庚辰朔上率王世子及文武群臣行望闕禮御勤政殿受王世子及群臣朝賀諸道進箋進方物忽刺溫指揮都里也老奴好骨看亏知哈指揮時仇時方哈吾都里千戶甫古老吾郎哈指揮都時於古老甫老波乙大廢古等三十五人〔中略〕隨班獻土物

○辛巳〔中略〕以野人金波乙大爲龍騎司護軍波乙大吾郎哈都督僉事都乙溫養子也

○乙酉護軍金波乙大來謝除職賜銀帶紗帽衣一襲

己丑○北平館報禮曹曰忽刺溫亏知哈兀者衛指揮僉事都兒也言本衛管下人三百六十餘戶軍數一千餘名迤東三日程有色割

兒大山迤北平衍無人迤西不知里數有達麼阿德處衛朶忽論等衛西南間十日程有開原衛東南間三十日程乃是朝鮮國會寧府大抵本土所產獐鹿居多熊虎次之土豹貂鼠又次之牛馬則四時常放草野惟所騎馬飼以菽豆若乏菽豆切獐鹿肉與水魚飼之其婚禮女生十歲前男家約婚後遞年三次筵宴二次贈牛馬各一待年十七八乃成婚禮父死娶其妾兄亡娶其妻亏知哈則父母死編其髮其末繫二鈴以爲孝服置其屍於大樹就其下宰馬而食其肉張皮鬣尾脚掛之兼置生時所佩弓箭不忌食肉但百日之內不食禽獸頭目女真則火葬皮冠頂上綴白羸布前蔽面目後垂於肩仍穿直身衣每遇七七日殺牛或馬煮肉以祭徹而食之

○庚申御勤政殿受朝愁濱江亏未車亏知哈英應巨等三人東良

北住吾郎哈指揮蔣家等九人並隨班獻土物

○乙未御勤政殿受朝吾都里指揮童倉等九人護軍童所老加茂等五人千戶禹亡乃等六人指揮童吾沙介等六人骨看亏知哈指揮波泰等七人隨班獻土物

乙未○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馳報禮曹曰吾都里童凡察之兄吾沙哈來言部落浮動吾今年老至誠歸順其情可尙今送京師宜加優待

○庚子御勤政殿受朝吾郎指揮仇里千戶好乙多孫等九人吾都里李也叱大等六人隨班獻土物

〔參〕壬寅○咸吉道都觀察使李叔時都節制使金宗瑞馳啓曰本道賊變多端軍令不可不嚴各官助戰軍或代以幼弱或減軍額或過日時乃送若事起倉卒不及應變則悔將何及請自今守令及管軍千戶等若有稽緩者勿論功臣族派除收贖決罪以嚴軍令下議政府議之

〔參〕○咸吉道都節刺使金宗瑞以妻病承召來京

〔參〕癸卯○傳旨平安道都節刺使側聞道內沿邊各官邑城狹窄每年冰合時則各其境內人民盡數入保各營居處接屋連簷俱爲草蓋慮恐一家失火雷騰電馳爲患不淺各官城內備火之具何以措置乎火之爲災出於不測更加盡心措置

癸卯○司憲府啓向化野人護軍金古乙道介乘醉道遇成均注簿尹士昫以馬鞭鞭之請依律杖八十特減二等

丙午○以童倉爲嘉善雄武侍衛司上護軍以童所老加茂加威勇將軍虎賁侍衛司護軍初倉來請受職以倉受中朝爵命不敢授今又來請之上議諸政府六曹議有異同上曰慎固封疆嚴兵待之可（疆力）也不宜除授官職以誘之大臣此議誠爲確論予甚嘉之然古昔帝王待夷狄也有經有權漢文之待匈奴是也童倉部落世居本國之

境爲我藩籬故太宗嘗曰此輩不可不撫綏亦不可不備禦也勿許除職雖爲至論然童倉等寓我邊境于今六七年今懷遷徙之心是則非我國待之不誠實此類性本獷悍故也今議者又曰除童倉上護軍予以爲朝廷雖授童倉指揮之職朝廷豈畏童倉等威勢而然耶誠以慕義而來朝也童倉曾徙居我國邊境朝廷亦已知我國撫恤童倉也童倉今又再來欲受本國之職今雖除職朝廷有何咎焉朝廷若知而問之荅以居我境內故授職何如蓋事之機會不可不審若今只除上護軍則倉必不滿於心矣或謂不可以宰相之職授野人然二品以上豈可摠謂之宰相哉居變理輔相之位者乃眞宰相也高麗之季乃以樞密以上皆稱宰相甚無謂也予意以謂授童倉嘉善中樞院副使似無妨也會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來啓童倉受職利害上又議于禮曹兵曹僉議以謂倉旣受中朝指揮之職

而帶金帶若除上護軍則帶鍬花銀帶似不滿於其心若授樞副則二品之職不可輕以遽授乃酌輕重以階嘉善授上護軍所老加茂去年春授宣略將軍今來請受上護軍然三品之官亦不可輕易遽授故但加威勇

〔參〕丙午○傳旨威吉道觀察使曰今都節制使上京四鎮鏡城甲山及沿邊各官防禦謹慎措置沿邊各官城內窄狹境內人民並皆入保草屋連簷火災可慮況今春月亂風尤爲可畏益加慎火

丁未○上護軍童倉護軍童所老加茂來謝除職賜童倉金帶紗帽靴及衣一襲

二十一年二月

〔參〕壬子○傳旨平安威吉道都節制使去丁巳年乃以守禦之策傳旨于本道令沿邊守令張榜常看今遵行與否嚴加考察更宜申明檢舉

甲寅○賜童倉玉環子

○乙卯御勤政殿受朝婆猪江指揮童搭赤等八人都指揮李將家子指揮李豆滿等八人隨班進土物

丙寅○童倉等言於禮曹曰我輩室廬在草野深慮賊徒突入且我輩與會寧人并耕而食若會寧人奪我舊田後雖與爭亦無及矣乞速遣還又曰我父兄盡爲賊所殺小人特厚蒙上德心欲侍衛輦轂然以一身侍衛豈若多率管下守禦邊方乎若於節制使之營旁近築室以賜當與管下親屬來居防戍矣禮曹具辭以啓

〔參〕○丁卯知碧潼郡事李元孫辭上引見日本郡隣於野人守禦甚難往盡乃心以副予意仍賜弓矢

(使脫力)

〔參〕戊辰○咸吉道都節制金宗瑞辭命兵曹判書皇甫仁參判辛引孫都承旨金墩與宗瑞同議邊務日中乃罷

戊辰○童倉及所老加茂等辭還

〔參〕己巳○傳旨吏曹咸吉道非徒防戍亦應接野人各官守令不可不擇自

今以吏武身言兼備可爲應變人差遣蓋從金宗瑞請也

二十一年閏二月

○己卯朔御勤政殿受王世子及群臣朝東良北吾郎哈都事劉甫乙看等七人指揮事金吾間主等六人婆猪江李滿住所遣所羅哥等四人並隨班辭賜衣服笠靴紬布緜布有差

己卯朔○上謂承政院曰劉甫乙看云今來所羅哥妻於丁巳年被擒請遣還今宜荅云癸丑年征討滿住時所獲人口頭畜我殿下保全首領曲加館穀厥後悉皆遣還彼滿住尙不知感侵掠如舊其罪惡不可勝記故邊將憤怒致討然滿住盡誠歸順則其所願欲我國必聽矣滿住不順而汝雖懇請事何由成且此事不干於汝勿更言

以此荅之何如遂議諸政府令北平館監護官傳諭於劉甫乙看

[參]乙酉○平安道觀察使報戶曹義州入居人民請依壬子年例限三年免稅戶曹啓限初年免稅爲便平安咸吉道沿邊各官入居人及流移復業者亦依此例從之

[參]○築平安道閭延府上無路石堡周回一千二百尺高十五尺弓家二百七

[參]癸巳○初平安道朔州郡人百餘上言曰本郡以防禦要衝置鎮陞爲都(衝九)護府今移鎮昌城郡陞爲都護府降本州爲知郡本郡石城完固且人心鎮定宜爲聲援請復陞爲都護府下吏曹吏曹啓曰可依上言復舊號從之

丙午○議政府啓日向化野人倭人等不拘投化年限居計貧富並皆給料未便令禮曹覈其投化年月久近居計貧富以給料從之

二十一年三月

壬子○進賀使通事僉知司譯院事辛伯溫賈奉勅書先來上出思政殿迎勅其勅曰今得建州等衛都指揮李滿住奏都督凡察指揮童山自永樂年間歸順朝廷開設衙門降給印信屢蒙恩賞陞授重職聽令管領部屬在邊自在居住已有年矣今凡察等不思出力效報背國負恩聽朝鮮國王招引去見受其鞍馬衣服等物就於本國隣近地方相參住坐又令毛憐衛都指揮郎不兒罕及凡察男阿哈荅等來詐誘李滿住等前去朝鮮國一同民住并本國收留逃叛楊木答兀下人口然此事未知虛實俱置不問已遣人賈勅往諭凡察等即將帶原管人民及挾同都指揮李張家指揮佟火爾赤等家屬并各人部下大小人口與收逃叛楊木答兀下人戶俱來遼東附近渾河頭與李滿住一處完聚勅諭至日王宜嚴禁彼處軍民人等不許阻當仍差人護送出境聽其搬移前來不唯見王之永篤忠誠而

且彼此相安不招外人非議豈不美哉故茲勅諭宜體至懷

甲寅○遣計稟使工曹參判崔致雲如京師其賫去奏本曰正統四年三月初四日陪臣崔士儀賫捧勅諭欽此臣不勝兢惶欽檢到累朝頒降處置野人勅諭事理及今李滿住等虛捏奏達事因逐一開坐伏望聖慈令凡察童山等仍舊安業以安邊民小國幸甚爲此謹具奏聞一永樂二年五月間奉欽差千戶王脩賫勅招諭三散秃魯兀等十處女直人民欽此臣父先臣恭靖王某備洪武二十一年間欽蒙太祖高皇帝聖旨准請公險鎮迤北還屬遼東公險鎮迤南至鐵嶺仍屬本國事因差陪臣金瞻賫文奏達當年十月初一日回自京師欽奉勅書三散千戶李亦里不花等十處員人准請欽此童猛哥帖木兒與伊父童揮護伊弟凡察等仍居本國公險鎮迤南鏡城阿木河地面臣祖先臣康獻王某時前項猛哥帖木兒被亏狄哈侵

奪家財等物其部屬人民逃散不能自存臣祖憐憫授本人鏡城等處萬戶職事造給公廩以至面前牢子等使喚人口鞍馬衣服並給撫綏臣父時陞授上將軍三品職事附籍當差其後蒙授朝廷職事仍與本國軍民相參住坐自臣祖及至臣身欽依洪武五年七月二十五日早朝奉天門陪臣張子溫等欽奉太祖高皇帝宣諭聖旨節該我聽得女直每在恁地面東北他每自古豪傑不是守分的人有恁去國王根底說着用心隄防者欽此又於永樂八年七月十八日陪臣韓尙敬等欽奉太宗文皇帝宣諭聖旨節該吾良哈這廝每真箇無禮呵我這里調遼東軍馬去備那里也調軍馬來把這廝每兩下里殺得乾淨了搶去的東西盡數還恁知道了這已後還這般無禮呵不要饒了再後不來打攪呵兩家和親了罷欽此宣德八年三月二十三日陪臣金乙賢賚捧到勅諭節該自今務要敬順天道恪